

일본의 書籍目錄에 나타난 조선본의 출판권 변화

- 17~18세기 초 京都에서 간행된 조선인 編著 유학서를 중심으로 -

The Changing of Publication Right of the Copies of Joseon Appeared the Book Lists in Japan

- Based on Confucian Books Written by Korean Published in Kyoto from 17C to Early 18C -

이 유 리 (Lee, You-Lee)*

◁ 목 차 ▷

| | |
|------------------------|----------------------|
| 1. 머리말 | 3.1 17세기 書籍目錄에 나타난 |
| 2. 17세기 일본의 書肆와 書籍目錄 | 조선인 편저 유학서 |
| 2.1 17세기 일본의 서사 성립과 발전 | 3.2 출판권의 변경 양상 |
| 2.2 書籍目錄의 종류와 구성 | 3.3 출판권 변경에 따른 간행 방식 |
| 3. 書籍目錄에 나타난 간행과 출판권 | 4. 맺음말 |
| 변경 | <참고문헌> |

< 초 록 >

한국과 일본의 서적 교류는 오랜 기간 이루어져 왔지만, 그 중 17세기에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이 시기 일본의 내부적 변화 때문이다. 출판문화 역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는데, 이를 반영하듯 양국의 서적 교류 또한 이전과는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에도시대의 서사는 당시 출판문화의 중심점적 역할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적어도 유통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이들이 미친 영향은 더할 나위 없이 컸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서사에서 판매용으로 작성한 書籍目錄 중 유일하게 출판권자가 기재되어 있는 『增益書籍目錄大全』과 현존본의 간기를 통해 18세기 전반까지 이루어진 조선인 편저 유학서의 출판권 이동 양상을 파악해 봄으로써 간행 이후 유통의 한 단면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그 결과 이 목록이 작성되기 이전까지 한 서사에서 간행되거나, 여러 서사에서 같은 판본으로 간행된 경우가 있었고, 이것들이 각각 그대로 18세기 전반까지 유지되거나, 변경되었다.

변경된 원인으로는 기본적으로 서사의 존속시기와 관련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동시기 같은 판본인 경우 각각을 간행한 서사의 존속시기를 고려하여 판단해보니, 출판권이 침해되거나, 동업 관계, 혹은 장판자의 간행처 변경으로 짐작되는 가능성이 있었다. 또한 판본에 나타는 간기를 서지적으로 분석해본 결과 이후 출판권이 바뀌어도 간행시기는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남겨둔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양상을 통해 출판권의 변경이 비교적 흔히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었는데, 특히 『自省錄』은 처음 판각했던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옮겨갔다가 후대에 출판권이 바뀌면서 다시 돌아와 간행되기도 하였다.

또한 출판권이 변경됨에 따라 판본이 어떻게 변화했는지에 대해 현존본을 확인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서지학적으로 분석해본 결과, 판목을 그대로 사용한 경우와 다시 판각한 경우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要語: 『增益書籍目錄大全』, 에도시대 서사, 일본 간행 조선인 유학서, 판권, 출판권, 한일서적교류

* 한국학중앙연구원 고문헌관리학과 박사과정(dreamy6214@naver.com)

접수일: 2012년 5월 25일 최초심사일: 2012년 9월 5일 심사완료일: 2012년 9월 15일

<ABSTRACT>

This study is about the changing patterns of the publication right of the confucian books written by Korean published in Kyoto from 17C to early 18C. The reason that would like to focus on this time is that this time is very meaningful on the publish culture as well as on the Japanese history. It has been pointed the effect of Imjin War(壬辰倭亂, 1592~1599) as one of the cause in this changing. There are much books and publishing tools that had been introduced from Joseon. And then there were published in the bookstores in Kyoto especially confucian books containing Korean writers.

The bookstores in Kyoto were important for published culture in this time because they had the largest number of publishing rates in the other publishers. So it is necessary to analyze the bookstores in order to understand effect and meaning in the copies of Joseon published in Japan.

The book lists written by book stores indicate books that had been published and sold in this time. Especially *Jeung-ik-seo-jeok-mong-rok-dae-jeon*(增益書籍目錄大全) is the only one that are included the publication right for each books. So it is expected to know particularly the circulation patterns of the books by bookstores, if it could compare with publishing year in the copies published at that time.

Consequently it could be found many patterns changing publication right between bookstores. There can be thought by many reasons like opening moment of the origin bookstore, or publication right infringement between bookstores etc.

Furthermore this study was trying to analyze bibliographically. As a results, it is possible to know the changing between the editions according on the publication right change or not.

Key words: *Jeung-ik-seo-jeok-mong-rok-dae-jeon*, bookstores in Edo period, Confucian books written by Korean published Japan, copyright, publication right, Introducing books between Korea and Japan

1. 머리말

한국과 일본의 서적 교류는 오랜 기간 이루어져 왔지만, 그 중 17세기에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이 시기 일본의 내부적 변화 때문이다. 江戸幕府라는 새로운 정권이 시작되었고, 유학이 독립적인 학문으로 성장하였으며, 평화가 지속되어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지면서 서민 문화가 발전하였다. 출판문화 역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는데, 이를 반영하듯 양국의 서적 교류 또한 이전과는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書肆는 서적의 상품화 뿐 만 아니라 어느 간행주체보다도 유동적인 유통으로 그 파급효과가 컸다는 점 또한 시사해주고 있어 이미 중요하게 생각되어지고 있다. 특히 에도시대의 서사는 서적의 간행부터 보급까지, 출판의 모든 과정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고 있었고, 당시 출판 주체 중 이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크기 때문에 에도시대 출판문화사를 파악함에 있어 이들은 간과할 수 없는 존재일 것이다.

임진왜란과 무역 등으로 일본에 전래된 조선본은 이 시기 서사에서 간행되었는데, 이는 여러 출판문화 관련 문헌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 중 서사에서 판매용으로 작성한 書籍目録¹⁾에서는 어떠한 책들이 간행되어 판매되었는지를 비교적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데, 그 중 유학서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당시 일본의 학문적 흐름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에도시대 말까지 수많은 서사가 개점과 폐점을 반복하면서 존속해왔다. 하지만 서사는 영리를 우선으로 하고 있어 서적의 수요가 일정하게 있고, 사회체제 유지에 저해되지 않는 한 계속해서 간행되었기 때문에 서적의 판권 혹은 출판권²⁾이

1) 일본에서는 書籍目録 그 자체를 근세에 출판을 검토한 書肆에서 편찬한 서적의 목록을 의미한다(鈴木俊幸, <書籍目録>, 『日本古典籍書誌學辭典』(岩波書店, 1999), 308). 이 글에서도 그대로 반영하여 사용하고자 한다.

2) 일본에서는 板元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판본에 대한 권리를 갖고 있는 주체를 지칭하고 있다(長谷川強, <板元>, 『日本古典籍書誌學辭典』(岩波書店, 1999), 475-476). 그러나 당시 藏板者が 서사에 출판만 맡긴 경우가 있었다(宗政五十緒, 『近世京都出版文化の研究』(同朋社, 1982), 116). 즉 판목 소유자와 출판자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변경되는 경우는 적지 않게 있었다. 더욱이 서사조합이 정식으로 공인된 18세기 초 이전에는 서사의 수가 급증하는 만큼 이것이 침해되는 경우도 많았기 때문에 원래의 출판권자를 파악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런데 합법적이든 아니든 출판권이 변경되었다는 것은 곧 간행처가 바뀌었고, 소비자층이 변경 혹은 확대되었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는 서적의 유통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한다.

이 글에서는 조선본이 17세기 일본에서 간행된 이후 어떻게 유통이 되었는지, 그 단면을 파악해보고자 한다. 유통은 실질적인 수용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 살펴본다면, 이 시기 일본에서의 조선본의 역할과 그 의미를 짐작해볼 수 하나의 단서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그러나 공급자와 수요자 간의 직접적인 유통 양상에 대해 알 수 있는 자료가 없기 때문에 서사 간의 출판권 이동을 통해 간접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이후 관련 연구의 토대가 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지금까지 이루어진 서사 관련 연구³⁾와 양국의 서적 교류 및 조선본의 일본 간행 관련 연구⁴⁾를 토대로 하여 서적목록 중 유일하게 출판권자가 기재되어 있는 『増益書籍目錄大全』과 현존본의 간기를 대조해보고자 한다. 다만 조

이 글에서는 판권(版權)과는 구별되는 출판권이라는 용어를 따로 사용하고자 한다.

3) 대표적인 연구서를 시기 순으로 나열하였다.

蒔田稻城, 『京阪書籍商史』(大阪: 出版タイムス, 1929).

上里春生, 『江戸書籍商史』(東京: 出版タイムス, 1930).

中村喜代三, 『近世出版法の研究』(東京: 日本學術振興會 丸善, 1972).

彌吉光長, 『江戸時代の出版と人』(東京: 日外アソシエーツ, 1980).

長友千代治, 『近世貸本屋の研究』(東京: 東京堂出版, 1982).

宗政五十緒, 『近世京都出版文化の研究』(京都: 同朋舎, 1982).

冠賢一, 『近世日連宗出版史研究』(京都: 平樂寺書店, 1983).

長友千代治, 『江戸時代の圖書流通』(京都: 思門閣出版, 2002).

今田洋三, 『江戸の本屋さん』(東京: 平凡社, 2009).

4) 山口正之, “徳川時代に於ける朝鮮書籍の飜刻,” 『文教の朝鮮』 20(1929).

松田甲, “日本にて飜刻せる退溪の著書,” 『日鮮史話』 6(1930).

三木榮, 『朝鮮醫書誌』(東京: 井上書店, 1956).

류탁일, “朝鮮朝 日本刊行 韓國書籍 初探,” 『語文教育論集』 8(1984).

이준걸, 『朝鮮時代 日本과 書籍交流研究』(弘益齋, 1987).

이유리, “17세기 일본 간행 조선본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2011).

선 간행 중국본도 있기 때문에 조선본임을 확실히 알 수 있는 조선인 編著 유학서만 대상으로 하기로 한다.

2. 17세기 일본의 書肆와 書籍目録

2.1 17세기 일본의 서사 성립과 발전

당시 일본의 출판 중심지는 京都, 大阪, 江戸였다. 그 중 京都는 중세에 활발히 이루어졌던 출판문화를 기반으로 근세에도 계속 중추적인 역할을 지속해 나갔는데, 이전 시기와 다른 점이 있다면 간행 서적의 종류와 향유 계층이 보다 더 다양해졌다는 것이다.

에도시대의 출판 주체로는 왕실, 幕府, 사원, 서사, 각 藩, 그리고 개인이 있다. 이 중 왕실과 幕府, 그리고 중세까지 출판을 주로 담당했던 사원은 16세기 말부터 17세기 초까지 활판인쇄를 활발히 하였는데, 이는 비약적인 출판문화의 발전을 이룰 수 있었던 계기가 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에도시대를 통틀어 가장 활발한 출판활동을 벌인 것은 서사이다. 이는 17세기만 놓고 봤을 때, 勅版은 元和연간(1615~1624) 이후 간행활동을 전혀 찾아볼 수 없고, 官版은 慶長연간(1596~1615)부터 天和연간(1681~1684)까지 간행한 서적이 9부 135책으로 연평균 0.102부 1.534책, 貞享연간(1684~1688)부터 寬延연간(1748~1751)까지 10부 102책으로 연평균 0.149부 1.522책⁵⁾인데 비해, 서사는 단적으로 가장 활발했던 元祿연간(1688~1704) 중 元祿 4년(1691)에 간행된 책의 종수만 총 7,204종⁶⁾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을 충분히 뒷받침해주고 있다.

서사의 정확한 출현 시기는 알 수 없으나, 현재까지는 慶長 8년(1603) 『太平記』

5) 笠井助治, 『近世藩校に於ける出版書の研究』(東京: 吉川弘文館, 1982), 31.

6) 小林善八, 『日本出版文化史』(日本出版文化史刊行會, 1938), 250.

40권을 간행한 富春堂이 가장 오래된 서사로 알려져 있어⁷⁾ 늦어도 17세기 초에는 서사가 존재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후 寬永연간(1624~1644)이 되면, 교토를 중심으로 서사가 급증하기 시작하였고, 1640년대부터는 자급적인 목적으로 서적을 간행했던 사원에서 서사에 위탁하는 추세가 늘어나면서,⁸⁾ 출판 주도층이 점차 서사로 옮겨졌다. 또한 급증하는 수요에 대처하는데 보다 효과적인 整版本(목판본)으로 판본의 형태도 바뀌어 갔다.

17세기 중후반이 되면, 오사카와 에도에서도 서사가 등장하기 시작하여 서적의 간행이 활발히 이루어진다. 당시 이 두 지역에서는 서민문화가 발달하여 문학작품이나 실용서가 많이 간행되었다. 이에 비해 교토에서는 계속 佛書 및 儒書가 주로 간행되어 유행과는 점차 거리가 멀어졌지만, 그렇다고 출판 규모 자체가 위축된 것은 아니었다.⁹⁾

元祿연간(1688~1704)은 에도시대를 통틀어 가장 출판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시기인데, 『元祿太平記』와 1685년에 간행된 교토에 대한 안내서인 『京羽二重』¹⁰⁾에는 이 시기 서사에 대해 언급한 내용이 있다.

교토의 서사 72軒은 中古부터 정해진 명문 서사이다. 공자 문하의 72賢에 비유하는데, 그 중에 林(林勘左兵衛, 出雲寺和泉椽, 松柏堂), 村上(村上勘兵衛, 平樂寺), 野田(吉文字屋庄右衛門), 山本(秋田屋平左衛門), 八尾(八尾甚四郎), 風月(風月庄左衛門, 風月堂), 秋田(秋田屋五郎兵衛), 上村(上村郎右衛門), 中野(中野小左衛門), 武村(武村市兵衛, 壽文堂), 이 10軒을 10哲이라고 이름을 붙여 세상에 드러나지 않음이 없는, 어느 누구라도 출중한 사람들이다.¹¹⁾

『元祿太平記』에서는 당시 72개소의 서사가 있다고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보다 더 많았을 것으로 추정되며, 明治시대가 되면 약 160개소로 증가하였다.¹²⁾

7) 長友千代治, 『近世貸本屋の研究』(東京: 東京堂出版, 1982), 3-4.

8) 冠賢一, 『近世日連宗出版史研究』(京都: 平樂寺書店, 1983), 21.

9) 藤田稻城, 『京阪書籍商史』(大阪: 出版タイムス, 1929), 4-8.

10) 작자미상, 『京羽二重』.

11) 梅園堂, <書林の中で學者たづぬる>, 『元祿太平記』卷6.

12) 宗政五十緒, 『近世京都出版文化の研究』(京都: 同朋舎, 1982), 16.

또한 그 중에서도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 큰 규모의 서사가 있었으며, 간행된 서적의 종류도 비교적 다양했음을 알 수 있다.

<표 1> 「京羽二重」에 나타난 교토의 주요 서사

| 서사 위치 | 주요 간행서 | 서사명 |
|---------|--------|---------|
| 小川一條上ル丁 | 歌書 | 林白水 |
| 二條車屋町 | 法華書 | 平樂寺 |
| 衣の棚 | 儒醫書 | 風月 |
| 東洞院 | 安齋書 | 武村市兵衛 |
| 富小路 | 禪書 | 田原仁左衛門 |
| 寺町誓願寺下ル | 眞言書 | 前川權兵衛 |
| 五條 | 眞言書 | 中野小左衛門 |
| 寺町 | 法華書 | 同五郎左衛門 |
| 五條橋通高倉 | 一向宗 | 西村九郎右衛門 |
| 二條御幸町 | 謠本 | 金屋長兵衛 |

교토 내 서사는 크게 두 구역에 위치하고 있었는데, 한 곳은 寺町通부터 二條通, 다른 한 곳은 六條通부근 및 堀川界限로, 寺町通에서는 주로 佛書を 간행하였고, 公卿家 및 宮人士家 계급의 주거지였던 二條通에서는 儒書 등을 주로 간행하였다.¹³⁾ 당시 일본에서 간행된 조선본 중에는 유학서가 비중이 가장 컸는데, 이를 통해 조선인 편저 유학서는 주로 二條通 내의 서사에서 간행되어 보급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서사의 수가 급증함에 따라 출판물의 종류는 다양해지고, 출판양도 늘었지만, 다른 서사에서 판본을 그대로(重版) 혹은 비슷하게(類版) 간행하여 판매하는, 즉 판권 및 출판권이 보호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심지어는 판목이 다른 지역으로 흘러가 무단으로 간행되는 경우도 있었다.¹⁴⁾ 서사에 있어서 판목은 가장 중요한 자본이었기 때문에 이것의 침해로 인한 피해가 점점 커지자 서로

13) 蒔田稻城, 앞의 책, 40.

14) 阿部隆一, <江戸時代書林出版書籍目錄解題> 1, 『江戸時代書林出版書籍目錄集成』 1 (井上書房, 1962), 10.

를 견제하기 위한 조합(仲間)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한편, 幕府에서는 好色本으로 인한 풍속의 문란과 크리스트교의 포교 금지로 인한 관련 서적 검열 및 그 밖의 정치적인 이유로 출판을 통제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따라 幕府에서는 正德 6년(1716) 교토의 서사조합을 공인하였고, 이후 에도(1721년 공인)와 오사카(1723년 공인)에서도 차례대로 공인되었다.¹⁵⁾

그러나 공인되기 이전인 17세기 중반부터 이미 동업자 관계의 서사가 부분적으로 존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 대표적인 예로는 村上勘兵衛(平樂寺), 武村市兵衛(壽文堂), 山本平左衛門, 八尾甚四郎가 속해 있는 四軒仲間(조합)을 들 수 있다. 이들은 앞서 언급했던 『元祿太平記』에 기재될 정도로 규모가 큰 서사였는데, 寬文 8년(1668) 12월에 法華宗門書堂을 결성하여 104점의 판목을 다른 서사인 藤田庄左衛門了竹에게서 매입하여 다음해 日蓮宗 및 天台宗 관련서 105점을 간행하였다.¹⁶⁾ 또한 아래의 <표 2>와 같이 書籍目錄을 함께 編刊한 서사들 역시 이와 같은 동업관계에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서사조합이 공인된 18세기 초부터 판권 및 출판권의 보호와 이에 대한 분쟁 해결을 조합에서 맡게 되었다. 이에 따라 새로운 판목을 조성할 경우에는 반드시 조합의 허가를 받아야만 했고, 조합에 가입한 서사에 한하여 출판권을 가질 수 있었는데, 매매 또한 가능하였다.

2.2 書籍目錄의 종류와 구성

일본의 書籍目錄은 서적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간행된 서적의 종류가 다양해지면서 당시까지 판매되고 있던 서적을 판매용으로 편찬하여 간행한 것이다. 현재까지는 寬文 6년(1666)경에 간행되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 『和漢書籍目錄』을 가장 앞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후 享和연간(1801~1818)까지 23종의 목록이 편찬 및 간행되었다.

15) 阿部隆一, 앞의 책, 12-13.

16) 冠賢一, 앞의 책, 23.

일본의 書籍目録에 나타난 조선본의 출판권 변화

書籍目録은 “표지 - 편제면 - 목차 - 목록” 순으로 구성되어 있다. 목록의 기술 방식은 『和漢書籍目録』의 경우 “전체 책수 - 서명”이 전부였으나, 『增補書籍目録』(1670)부터는 서명 아래의 여백에 해당 서적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기재하기 시작하였다.

書籍目録은 현재 일본에서 크게 3가지 - 에도 전기(寛文연간(1661~1673)~享保연간(1716~1736))에 작성된 것, 伊呂波 순으로 작성된 것, 에도 후기(享保~享和연간(1801~1804)) - 로 분류하고 있다.

이 중 에도 후기의 書籍目録은 元祿연간 이후 이전의 목록에서 燒版 혹은 絶版된 서적이 생기고, 학술 및 문예계의 추세도 변화가 생겼으며, 무엇보다 享保 7년(1722) 幕府의 出版條令(주 20번 참조)이 반영된 새로운 목록의 필요성에 의해 작성되었다.¹⁷⁾

각 항목에 해당하는 書籍目録은 다음의 표¹⁸⁾와 같다.

<표 2> 에도시대 前期에 작성된 것

| 번호 | 서목명 | 간행/수정시기 | 편찬/간행자 | 비고 |
|-----|--------|--------------------|----------------------|---|
| 1 | 和漢書籍目録 | 寛文 6년 刊 (1666) | 未詳 | 濃縹色表紙(14×19cm), 四周單邊(11.0×16.2cm), 有界, 11行, 1冊. |
| 2 | 增補書籍目録 | 寛文 10년 刊 (1670) | 京都 西村又左衛門·江戸 西村右左衛門刊 | 濃縹色表紙(13.3×19.5cm), 四周單邊(10.9×16.4cm), 有界, 11行, 大黒口, 2冊. |
| 2-1 | 增補書籍目録 | 寛文 11년 刊 (1671) | 京都 山田市郎兵衛刊 | 濃縹色表紙(10.2×21.3cm), 四周單邊(8.4×18.1cm), 有界, 15行, 1冊. 2번 책을 바탕으로 약간 수정하였다. |
| 2-2 | 增補書籍目録 | 延寶 初 刊 | | 艶出濃縹色表紙(8.5×19cm), 四周單邊(7.4×17.6cm), 有界, 15行, 1冊. 2-1번 서목을 약간 보완하였다. |
| 2-3 | 增續書籍目録 | 延寶 2년 刊 (1674) | 京都 西村市良右門刊 | 艶出濃縹色表紙(8×19cm), 1冊. 2-2번 서목 을 보완하여 번각하였다. |
| 3 | 古今書籍題林 | 延寶 3년 刊 (1675) | 京都 毛利文八刊 | 濃縹色表紙(9×19cm), 2冊. |

17) 阿部隆一, 『江戸時代書林出版書籍目録集成』 3 (井上書房, 1962), 10.

18) 주 14번, 7-16의 내용을 토대로 작성하였다.

| 번호 | 서목명 | 간행/수정시기 | 편찬/간행자 | 비고 |
|-----|----------|--------------------|--------------------|--|
| 3-1 | 改正廣益書籍目錄 | 貞享 2년 修 (1685) | 京都 西村市良右 門外 4명刊 | 3번 증보 |
| 4 | 廣益書籍目錄 | 元祿 5년 刊 (1692) | 京都 永田調兵衛 外 4명刊 | 元藏艷色茶褐色表紙(11×16cm), 四周單邊(8.6×3.8cm), 有界, 12行, 5冊. |
| 5 | 新版增補書籍目錄 | 元祿 12년 刊 (1699) | 京都 永田調兵衛 外 3명刊 | 5冊 |

<표 3> 伊呂波 순으로 작성된 것

| 번호 | 서목명 | 간행/수정시기 | 편찬/간행자 | 비고 |
|-----|----------|----------------------|-----------------|--------------------------------|
| 1 | 新增書籍目錄 | 延寶 3년 刊 (1675) | 江戸 刊 | 3冊 |
| 1-1 | | 天和 3년 刊 (1683) | | 3冊. 5번 改修 |
| 2 | 書籍目錄大全 | 天和 원년 刊 (1681) | 江戸 山田喜兵衛 編/刊 | 3冊. |
| 2-1 | | 天和 원년 刊 (1681) | 未詳 | 3冊. 後印 |
| 2-2 | | 天和 원년 刊 (1681) | 江戸 藤木兵左衛 門刊 | 3冊. 後印 |
| 2-3 | | 天和 원년 刊 (1681) | 江戸 松葉清兵衛 刊 | 3冊. 6~6-3은 간기는 다르지만 모두 같은 板이다. |
| 3 | 増益書籍目錄大全 | 元祿 9년 刊 (1696) | 河内屋喜兵衛刊 | 6冊 |
| 3-1 | | 元祿 9년 刊 後修 | | 수정 시점은 3-2보다는 앞선 시기 |
| 3-2 | | 元祿 11년 (1698) 増修 | 丸屋源兵衛刊 | 6冊 |
| 3-3 | | 寶永 3년 (1706) 増修 | | 6冊 |
| 3-4 | | 寶永 6년 (1709) 増修 | | 6冊, 3-3 小増補板 |
| 3-5 | | 正徳 5년 (1715) 修 | | 6冊, 3-4에서 상당히 수정되었다.(특히 가격) |
| 3-6 | | 享保 7년 이후 (1722) 修 | | 6冊, 3-5에서 好色本 부분 전부 삭제되었다. |

일본의 書籍目録에 나타난 조선본의 출판권 변화

<표 4> 에도시대 後期에 작성된 것

| 번호 | 서목명 | 간행/수정시기 | 편찬/간행자 | 비고 |
|----|----------|------------------|-----------------------|-----|
| 1 | 新撰書籍目録 | 享保 14년 (1729) | 文照軒柴橋 編 京都 永田調兵衛 刊 | 4冊 |
| 2 | 新撰書籍目録 | 寶歷 4년 (1754) | 文昌軒柴橋 編 京都 永田調兵衛 刊 | 3冊 |
| 3 | 大増書籍目録 | 明和 9년 (1772) | 博古堂南隱 編 京都 武村新兵衛 刊 | 3冊 |
| 4 | 合類書籍目録大全 | 享和 元年 (1801) | 浪華多田勤兵衛 | 12冊 |

3. 書籍目録에 나타난 간행과 출판권 변경

3.1 17세기 書籍目録에 나타난 조선인 편저 유학서

<표 5>를 통해서 각 시기 별로 간행된 조선본을 살펴볼 수 있다. 17종¹⁹⁾ 중 대부분은 조선 전기에 간행된 것들인데, 특히 퇴계 이황 저서가 6종으로 가장 많다.

1715년경까지 간행된 서적이 대체로 비슷한 가운데, 『三綱行實圖』와 같이 초기의 목록에 보이다 사라진 경우가 있는 반면, 『千字類合』과 같이 비교적 늦게 간행되어 이후에 계속 보급된 경우도 있다.

享保 7년(1722) 幕府에서 발표한 享保연간 出版條目²⁰⁾ 이후 작성된 『新撰書

19) 『入學圖說』과 『三峯先生心氣理篇』은 실질적으로 하나의 책이므로 1종으로 보았다.

20) 享保 7년 出版條目

제 1조 이후 새로 관각한 서적을 간행하는 경우, 儒書·佛書·神書·醫書·歌書 등 모든 서적에 대하여 원래의 내용 그대로는 괜찮으나, 괴상한 異說을 섞어 간행하는 것은 엄금한다.
제 2조 지금까지 간행되었던 서적 중 好色本 종류는 풍속을 어지럽히니 絶版한다.
제 3조 사람들의 家筋 및 선조에 대한 것 등을 신간인 서적에 쓰여 세간에 퍼뜨려지는 것을 금지한다. 만약 이러한 책이 있어 자손들로부터 고발하는 경우가 있으면, 엄격히 조사한다.

제 4조 어떠한 서적도 이후 版行하는 경우는 作者 및 板元の 필명을 표기할 것.

籍目録大全』에는 「三峯先生心氣理篇」과 「千字類合」을 제외한 모든 서적들은 보이지 않는 대신, 새로운 서적이 포함되어 있다. 물론 이 서적이 元祿연간의 목록 이후 30년간의 신간서 만을 수록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 서적 수가 이전보다 훨씬 줄어들 수 밖에 없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幕府의 出版條目을 반영하여 好色本, 그리고 유학서 중에서는 조합 내에서 判권 혹은 출판권과 判權하여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은 제외시켰기 때문일 것으로 보인다.²¹⁾ 특히 후자의 경우 判權된 判목 또한 조합 내에서 判權을 금지하였기 때문에 「新撰書籍目録大全」에 포함되지 않은 서적 중에는 이러한 이유와 관련된 것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新撰書籍目録大全」에 처음 등장하는 「東人詩話」는 「倭板書籍考」²²⁾에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17세기에 이미 일본에서 判權되었는데, 일본 菊池東勻가 判權점을 붙이고, 貞享 4년(1687)의 서문이 있는, 에도의 日野屋書助에서 判權된 現存本²³⁾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7세기의 書籍目録에 이 책이 기재된 경우는 보이지 않는데, 이는 당시 書籍目録이 判權된 모든 서적을 포함하고 있지는 않다²⁴⁾는 것을 보여주는 한 예로 생각된다.

「古今書籍題林」에서부터 보이기 시작하는 「三峯先生心氣理篇」은 「倭板書籍考」에 따르면 하나의 독립된 책이 아니라 「入學圖說」의 권말에 실려 있는 한 부분이다.²⁵⁾ 이는 現存本인 和刻本 뿐만 아니라 判權본이었을 가능성이 큰 明宗 2년(1547) 榮川 判權本인 「入學圖說」²⁶⁾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제 5조 權現樣(德川家康)는 물론, 將軍家에 대해 쓴 것은 板本·書本(寫本) 모두 금지한다. 어떻게든 將軍에 대해 언급해야 할 때에는 奉行所의 지도를 받아 版行한다. 오른쪽의 규정을 준수할 것이며, 이후 새로운 저작을 判權하는 경우는 잘 조사하여 判權할 것. 만약 규정을 어긴 자가 있을 시 奉行所에 고발한다. 이후 위반한 것으로 判權될 경우에도 板元·書物問屋에 判權을 내릴 것이다. 新判權物은 仲間 내에서 잘 조사하여 判權함 없도록 한다.

21) 阿部隆一, 앞의 책, 10.

22) 幸島宗意가 17세기에 判權된 和漢書에 대해 判權한 것으로 1702년에 判權되었다.

23) 東京都立圖書館 市村文庫 소장(市村文庫 921-IW-205 (市 2191)).

實踐女子大學 山岸文庫 소장(山岸文庫 5492).

內閣文庫 소장(內閣文庫 363-170).

24) 冠賢一, 앞의 책, 10.

25) 幸島宗意, <儒書之部>, 「倭板書籍考」 卷2.

일본의 書籍目録에 나타난 조선본의 출판권 변화

<표 5> 17세기 書籍目録에 기재된 조선인 편저 유학서

| 서목명 | 增補書籍目録 (1670) | 古今書籍題林 (1675) | 廣益書籍目録 (1692) | 新版增補書籍 目録 (1699) | 增益書籍目録 大全(1696년 刊, 1715년 增修 刊) | ※新撰 書籍目録 大全 (1729) |
|--------|------------------|------------------|------------------|------------------------|---|-----------------------------|
| 서명 | 大學經筵講義 | 大學經筵講義 | 大學經筵講義 | 大學經筵講義 | 大學經筵講義 | 東人詩話 |
| | 易學啓蒙傳疑 | 易學啓蒙傳疑 | 易學啓蒙傳疑 | 易學啓蒙傳疑 | 易學啓蒙傳疑 | |
| | 易學啓蒙補 要解 | 易學啓蒙補 要解 | 易學啓蒙補 要解 | 易學啓蒙補 要解 | 易學啓蒙補 要解 | |
| | - | 擊蒙要訣 | 擊蒙要訣 | 擊蒙要訣 | 擊蒙要訣 | |
| | 朱子書節要 | 朱子書節要 | 朱子書節要 | 朱子書節要 | 朱子書節要 | ※東醫寶鑑 (조선 허씨) |
| | 朱子行狀 | 朱子行狀 | 朱子行狀 | 朱子行狀 | 朱子行狀 | ※ 鍼灸經驗方 (조선 許任) |
| | 聖學十圖 | 聖學十圖 | 聖學十圖 | 聖學十圖 | 聖學十圖 | |
| | 天命圖說 | 天命圖說 | 天命圖說 | 天命圖說 | 天命圖說 | |
| | 入學圖說 | 入學圖說 | 入學圖說 | 入學圖說 | 入學圖說 | |
| | 自省錄 | 自省錄 | 自省錄 | 自省錄 | 自省錄 | |
| | 西銘考證講義 | 西銘考證講義 | 西銘考證講義 | 西銘考證講義 | - | |
| | 夙興夜寐箴 | 夙興夜寐箴 | 夙興夜寐箴 | 夙興夜寐箴 | 夙興夜寐箴 | 夙興夜寐箴 |
| | - | 三峯先生 心氣理篇 | 三峯先生 心氣理篇 | 三峯先生 心氣理篇 | 三峯先生 心氣理篇 | 三峯先生 心氣理篇 |
| | 續蒙求分註 | 續蒙求分註 | 續蒙求分註 | 續蒙求分註 | 續蒙求分註 | |
| | 三綱行實圖 | - | - | - | - | |
| | 韻會玉篇 | 韻會玉篇 | 韻會玉篇 | 韻會玉篇 | 韻會玉篇 | |
| | - | - | - | - | 千字類合 | 千字類合 |
| 南秋江鬼神論 | 南秋江鬼神論 | 南秋江鬼神論 | 南秋江鬼神論 | 南秋江鬼神論 | | |

26) 성암고서박물관 소장(성암3-128).

3.2 출판권의 변경 양상

현재까지 書籍目錄에 출판권자가 표기된 것은 『增益書籍目錄大全』 뿐이다. 따라서 이 목록을 통해서 작성된 시기 동안 각 서적의 출판권자를 확인할 수 있는데, 이 목록이 1696년 河內屋喜兵衛에 의해 처음 간행된 이후, 丸屋源兵衛에 의해 약 30년간 원래의 목록을 바탕으로 6차례 增修되었기 때문에 이 목록과 17세기 현존본의 간기를 대조해보면 18세기 전반까지 이루어진 판목의 출판권 변경과정에 대해 살펴볼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표 6>은 1715년에 간행된 『增益書籍目錄大全』에 기재된 해당 서적에 대한 정보와 출판권자에 대한 것, 그리고 그 변경여부를 알기 위해 17세기 현존본 상의 간행처를 정리한 것이다. 항목 중 “목록상의 출판권자”의 경우 書籍目錄에서 서사의 성씨만 기재하고 있는데, 당시 서사 경영자 중 동일한 성씨인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그 지칭하는 곳을 명확히 알 수 있는 경우에 한해서 괄호 안에 원래의 서사명을 제시하였다.

<표 6> 『增益書籍目錄大全』(正徳版) 중 해당 서적의 기재 내용과 현존본 상의 간행처

| 서명 | 책수 | 시기별 목록 간 변동사항 | 가격 (환산: 匁) | 목록상의 출판권자 (원서사명) | 현존 판본상에 표기된 간행처(간행연도) |
|----------|----|---|-------------|------------------|------------------------------------|
| 擊蒙要訣 | 1 | 寶永6년판까지의 가격에서 +1匁9分된 板元이 寶永6년판까지의 風月庄(風月庄衛門)에서 바뀜 | 1匁1分 (1100) | 金屋尺 | 京都 田中清左衛門(1658) |
| 南秋江鬼神論 | 1 | 寶永9년판까지 가격이 5分으로 되어 있음 | 공란 | 武村市 (武村市兵衛) | 京都 田原仁左衛門(1643), 風月宗知(風月庄衛門, 1643) |
| 大學經筵講義 | 2 | - | 3匁 (3000) | 武村新 (武村新兵衛) | 武村新兵衛(1663), 小嶋彌左衛門(1663) |
| 三峯先生心氣理篇 | 1 | 元祿版 목록에는 출판권자가 표기되어 있지 않음 | 공란 | 立入 | 해당간본 없음 |
| 聖學十圖 | 1 | - | 3匁5分 (3500) | 武村新 (武村新兵衛) | 京都 武村新兵衛(1655), 西村五郎兵衛(1655) |

일본의 書籍目録에 나타난 조선본의 출판권 변화

| 서명 | 책수 | 시기별 목록 간 변동사항 | 가격 (환산: ㄲ) | 목록상의 출판권자 (원서서명) | 현존 판본상에 표기된 간행처(간행연도) |
|---------|----|--|-------------|------------------|---------------------------------------|
| 續蒙求分註 | 8 | 寶永9년판까지의 가격에서 +3ㄲ됨 | 11ㄲ (11000) | 夷講中 | 京都 大和田九左衛門(1659) |
| 夙興夜寐箴 | 1 | - | 8分 (800) | 林九 (~兵衛?~郎兵衛?) | 谷岡七左衛門(1666) |
| 易學啓蒙補要解 | 6 | 寶永版까지의 가격에서 +3ㄲ됨 | 11ㄲ (11000) | 野田庄 (野田庄兵衛) | 해당간본 없음 |
| 易學啓蒙傳義 | 2 | 寶永6년판의 가격이 元祿9년초판에서 -1ㄲ되었다가 正徳版에서 다시 원래의 가격이 됨 | 3ㄲ5分 (3500) | 武村三 (武村三郎兵衛) | 伊吹權兵衛(1657), 五倫書屋(1657), 武村三郎兵衛(1669) |
| 韻會玉篇 | 2 | 寶永9년판까지의 가격에서 +1ㄲ됨 | 3ㄲ7分 (3700) | 野田清 | 해당간본 없음 |
| 入學圖說 | 2 | 板元이 寶永9년판까지의 丁字屋(丁字屋九郎右衛門)에서 바뀜 | 2ㄲ5分 (2500) | 井上 (井上忠兵衛) | 京都 安田十兵衛(1648) |
| 自省錄 | 2 | 寶永版까지의 가격에서 +1ㄲ됨 | 5ㄲ (5000) | 村上 (村上勘兵衛) | 京都 平樂寺 村上勘兵衛(1665), 出雲寺松柏堂(1865) |
| 朱子書節要 | 20 | - | 35ㄲ (35000) | 上村 (上村次郎右衛門) | 荒木利兵衛(1656), 京都 上村次郎右衛門(1671) |
| 朱子行狀 | 1 | - | 3ㄲ (3000) | 村上勘左 (村上勘左衛門) | 京都 村上 平樂寺(1665), 壽文堂(1712) |
| 天命圖說 | 1 | - | 공란 | 中野惣 (中野宗左衛門) | 風月宗旨(風月庄衛門, 1646), 京都 中野小左衛門(1651) |
| 千字類合 | 1 | 寶永9년판까지의 가격에서 +9分됨 | 1ㄲ9分 (1900) | 大井七 (大井七郎兵衛) | 京都 大井 躍鯉堂(1692) |

『增益書籍目録大全』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西銘考證講義』와 『三綱行實圖』, 아직 현존본의 여부를 알 수 없는 2종(『易學啓蒙補要解』, 『韻會玉篇』), 그리고 立入(立ち入り)가 표기되어 있는, 즉 독립된 책이 아닌 『三峯先生心氣理篇』을 제외하고는 출판권의 변경 과정을 엿볼 수 있다.

먼저 목록과 17세기 간본의 간기가 일치하는 경우에는 『朱子書節要』, 『朱子行狀』, 『自省錄』, 『易學啓蒙傳義』, 『大學經筵講義』,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夙興夜寐箴』, 『擊蒙要訣』, 『天命圖說』, 『續蒙求分註』, 『千字類合』, 『入學圖說』, 『南秋

江鬼神論』가 해당된다. 그런데 간본의 간년과 해당 서사의 존속 시기를 고려해보면, 변경 과정이 보다 더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7>의 17세기 간본에 나타난 간행처와 『增益書籍目錄大全』에 기재된 내용을 바탕으로 출판권의 변경 양상을 분류하였다. 먼저 17세기 간본의 간행처가 단일한지에 따라 두 부류(A, B)로 나눈 후 각각의 항목 안에서 다시 『增益書籍目錄大全』과의 동일한지에 따라 나누었으며, 변경 원인에 대한 가능성을 짐작해 볼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서술하였다.

A. 『增益書籍目錄大全』의 작성 이전에 서사 한 곳에서 간행된 경우(『朱子行狀』, 『夙興夜寐箴』, 『擊蒙要訣』, 『自省錄』, 『續蒙求分註』, 『千字類合』, 『入學圖說』)

이는 17세기 간본과 목록의 출판권자가 일치하는 경우이다. 다시 말해서 현존본의 계통이 하나로, 목록이 작성되기 이전인 17세기 후반까지 서사 한 곳에서 간행된 것들이다. 이 안에서 현존본 간기의 간행처와 목록에 기재된 출판권자의 일치 여부에 따라 다시 나누었는데, 일치하지 않은 경우는 출판권이 변경되었음을 말해준다.

**A-1. 17세기 동안 출판권자의 변동 없이 18세기 전반까지 유지된 경우
(『朱子行狀』)**

17세기 간본의 간행처와 목록의 출판권자가 일치하는 경우이다. 『朱子行狀』은 1665년 村上平樂寺에서 간행되었다. 간기에도 “寬文五稔乙巳四月吉旦 二條通玉屋町村上平樂寺開板”이라고 되어 있어 서사 중에서는 이곳에서 처음 판각되었음을 알 수 있다. 목록에는 正徳版까지 村上勘左衛門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 村上勘左으로 표기되어 있다. 村上이 별도로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표기된 것이 서로 다른 서사임은 확실하다.

그런데 이 책의 1712년 간본의 표제면에는 “壽文堂(武村市兵衛)藏板”이라고 되어 있다. 이곳은 앞서 언급했듯이 村上平樂寺와 함께 17세기 중반부터 동업

관계에 있었던 가까운 사이였고, 村上勘左衛門와 村上平樂寺의 원래 이름인 村上勘兵衛는 서로 이름이 비슷하기 때문에 작성자가 잘못 기재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壽文堂에서의 간행시기는 1712년으로, 正徳版 목록의 수정시점보다 3년이 앞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록에서 출판권자가 수정되지 않은 점이 주목된다. 그런데 간기에 “藏板”이라고 표기하고 있어 판권 자체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짐작되는데, 이는 두 서사가 동업관계였다는 점과 관련지어 생각해보면, 이 판목을 공유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A-2-1. 17세기 말에 간행처가 변경된 경우(『夙興夜寐箴』, 『千字類合』)

17세기 간본의 간행처와 목록의 출판권자가 불일치한 경우이다. 다시 말해서 해당간본의 간행처가 목록이 작성될 때 변경된 것들이다. 이 부분은 元祿 9年初版 목록과 비교해봤을 때 내용상 차이가 없다. 그런데 이 목록이 실제 작성된 시기는 간행된 시기인 1696년보다 앞섰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늦어도 17세기 후반에는 출판권이 변경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표 6>에 의해 1692년에 처음 간행된 것으로 확인되는 『千字類合』은 그 출판권자가 짧은 시기 안에 변경되었다는 점이 주목된다.

A-2-2. 18세기 초에 변경된 경우(『擊蒙要訣』, 『續蒙求分註』, 『入學圖說』)

『擊蒙要訣』은 1658년 田中清左衛門에서 간행된 후 17세기 후반에는 風月庄左衛門으로 변경되었다가, 18세기에 들어와서는 金屋尺라는, 목록 상 기재되어 있는 서사로 다시 변경되었음을 알 수 있다.

田中清左衛門은 寛文 2년(1662) 당시 교토 室町鯉山町에 있던 서사로 존속기간은 최소 寛永연간(1624~1644)~寛文연간(1661~1673)인 것으로 보인다.²⁷⁾ 따라서 風月庄左衛門으로 변경된 이유는 이 서사의 존속기간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

27) 井上隆明, 『改訂増補近世書林板元總覽』(東京: 青裳堂書店, 1998), 423.

『續蒙求分註』는 1659년 大和田九左衛門에서 간행되었는데, 元祿 9년 초판의 목록부터는 夷講中이라고 표기되어 있다. 講이라는 것은 동업 관계에 있는 서사들이 모여서 출판·금융·교제·영업 상의 공동 이해관계를 함께하는 작은 단체를 의미하는데, 夷講·伊勢講·弁天講이라고 하는 세 개의 단체가 있었고, 이 중 伊勢講은 43인이 속해있었는데, 기록을 통해 貞享 2년(1685)에 처음 결성된 것으로 보고 있다.²⁸⁾ 즉 목록에 이처럼 표기된 것은 해당 단체에서 공유하고 있던 관목이라고 할 수 있다. 正徳版 목록에는 이들 세 단체가 관권주로 기재된 것을 볼 수 있는데, 夷講은 28종, 伊勢講은 19종, 弁天講은 2종이 포함되어 있다.²⁹⁾ 따라서 『續蒙求分註』는 夷講이라는 단체에 속한 관목이었음을 알 수 있다.

『入學圖說』은 먼저 간행한 安田十兵衛의 경우 교토 三條寺町誓願寺 앞에 위치하였고, 출판활동은 寛永 4년(1627)부터 元祿연간(1688~1704)까지인 것으로 보이며, 주로 古典, 軍記, 漢籍 등을 중심으로 다양한 종류의 서적을 간행하였다.³⁰⁾ 한편 丁字屋九郎右衛門은 寛永연간부터 昭和 15년(1940)까지 영업했던 서사로, 佛書を 전문으로 간행했다.³¹⁾ 따라서 安田十兵衛의 존속 기간과 관련하여 관권주가 丁字屋九郎右衛門으로 바뀌게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正徳版 목록에는 井上로 표기되어 있어 18세기 초에 다시 출판권자가 바뀌었음을 알 수 있다. 井上라는 성을 가진 경우가 여러 개 있으나, 지역과 존속 기간을 미루어봤을 때, 井上忠兵衛일 가능성이 가장 높다. 그러나 井上忠兵衛는 최소 萬治연간(1658~1661)~安永연간(1772~1781)까지 영업한 것으로 보이기³²⁾ 때문에 출판권 변경 원인으로 존속기간은 큰 관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8) 蒔田稻城, 앞의 책, 143-144.

29) 彌吉光長, 앞의 책, 188.

30) 市古夏生, <安田十兵衛>, 『日本古典籍書誌學辭典』(岩波書店), 578.

31) 和田恭幸, <丁字屋九郎右衛門>, 『日本古典籍書誌學辭典』(岩波書店), 391.

32) 井上隆明, 앞의 책, 76.

A-2-3. 19세기에 변경된 경우(『自省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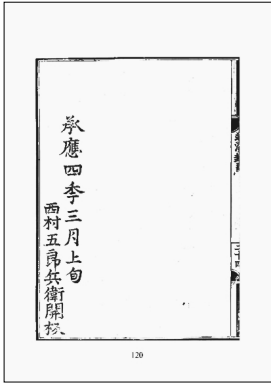
正徳版 목록에 기재된 출판권자가 17세기 간본까지는 일치하나, 19세기 간본과는 불일치한 경우이다. 『自省錄』은 1665년 村上平樂寺에서 간행되었고, 목록에 기재된 출판권자 역시 동일하다. 이 책에 훈점을 단 鶯飼石齋(1615~1664)는 山崎闇齋(1618~1682)의 문인인데, 村上平樂寺 역시 山崎闇齋와 교류하였기³³⁾ 때문에 서사 중에서는 이곳에서 처음 간행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참고로 동업관계였던 壽文堂 역시 그의 제자였었는데, 山崎闇齋와 그의 문인들의 저서나 훈점본을 많이 간행했었다.

그런데 慶應 원년(1865)에 간행된 出雲寺松栢堂 간본을 보면, 기존의 판본에서 원래의 간기 중 간행처만 없애고 “慶應元年乙丑五月求於江戸”라고 새롭게 새겨 넣은 것이 확인된다. 그리고 이 판본의 간행처는 마지막장에 있는 광고면에 “御書物所 京都三條通堺町 出雲寺松栢堂”이라는 문구를 통해 알 수 있다. 따라서 17세기에 교토에서 간행된 후 에도에도 전해져 보급되다가 19세기에 출판권자가 바뀌어 다시 에도에서 교토로 가져와 간행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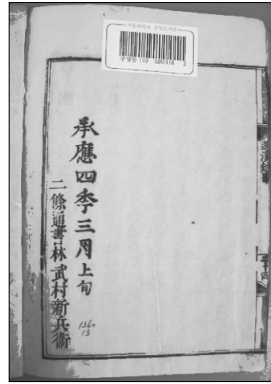
이에 대해서 생각해볼 수 있는 가능성은 판권의 소유가 서사나 개인이냐에 따라 달라진다. 먼저 판권이 서사에 있었다면, 합법적이든 아니든 서사 간의 판목 유통으로 볼 수 있을 것이고, 반면 개인이라면, 거래하던 간행처를 바꿈으로써 출판권이 이동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책은 일본에서만 약 200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간행되어왔기 때문에 개인이 오랜 기간 판권을 갖고 있을 가능성보다 적어도 중간에 서사에서 판권을 갖게 되었을 가능성이 더 크다고 생각한다. 그렇다고 한다면 出雲寺松栢堂은 교토와 에도에 각각 지점이 있었기 때문에 1865년 이후에 이 판권을 두 지역 중 한 곳에서 구했을 것으로 보이며, 이후 모든 지점에서 간행이 이루어졌으리라 짐작된다.

33) 冠賢一, 앞의 책, 84.

권을 이곳에서 갖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두 간본의 간기를 보면 글자체와 위치가 西村五郎兵衛 쪽이 훨씬 자연스럽게 때문에 원래의 출판권자는 西村五郎兵衛이지만, 목록이 작성되던 17세기 후반에는 武村新兵衛로 바뀌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바뀐 후 간기의 간행시기 부분은 그대로 둔 것이 눈에 띈다.



<그림 3> 「聖學十圖」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그림 4> 後印本 「聖學十圖」
(서울대 소장)

B-1-2. 같은 해에 두 서사에서 간행되었으나, 목록에는 제3의 서사가 기재된 경우(『易學啓蒙傳義』, 『南秋江鬼神論』)

『易學啓蒙傳義』는 1657년 伊吹權兵衛와 五倫書屋에서 각각 간행되었고, 이후 1669년에 武村三郎兵衛에 의해 다시 간행되었다. 그리고 목록에 기재된 곳은 가장 늦은 시기에 간행한 武村三郎兵衛이다. 그런데 세 판본은 서지사항을 비교해봤을 때(<표 7> 참조) 동일 판본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역시 판권문제 혹은 별도의 장판자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위의 「聖學十圖」처럼 출판권자가 바뀌고 나서도 간행할 때 간기는 그대로 둔 경우가 있으나, 현재 확인할 수 있는 두 서사의 존속시기가 伊吹權兵衛의 경우 최소한 正保연간(1644~1648)부터 萬治연간(1658~1661)이고,³⁴⁾ 五倫書屋의

34) 井上隆明, 앞의 책, 96.

경우 다른 간본을 확인해보면 『御手鑑』³⁵⁾이 1651년, 『王陽明先生文錄鈔』³⁶⁾가 1653년에 간행되었으므로 결국 두 서사는 동시기에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가능성은 매우 적었으리라 생각한다.

반면 가장 늦게 간행한 武村三郎兵衛가 출판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앞의 두 서사의 존속시기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앞의 서사가 폐업을 하면서 판목을 입수하거나, 장판자가 간행처를 바꿨을 가능성이 크다.

『南松江鬼神論』은 『易學啓蒙傳義』와 다른 점이 있다면 제 3의 서사가 관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간기에 의하면 1643년 같은 해에 田原仁左衛門³⁷⁾과 風月庄左衛門에 의해 간행되었다. 그런데 두 곳의 판본의 서지사항은 물론, 간기 부분 중 연월일이 일치하고 있어 동일 판본인 것으로 보인다.(<표 7> 참조).

간기는 田原仁左衛門 간행 판본에는 “寬永癸未歲仲秋吉辰”, 風月庄左衛門 간행 판본에는 “寬永癸未歲仲秋吉辰 二條觀音町 風月宗知新刊”이라고 되어 있어, 風月庄左衛門에서 먼저 간행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두 서사 모두 목록이 작성될 때까지는 존속하고 있었고, 서사 발생 초기 단계였기 때문에 판권 문제 혹은 장판자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목록에서는 元祿 9년 초판부터 “武村市”라고 기재되어 있어 17세기 말에는 출판권자가 바뀌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앞서 간행했던 두 서사가 각각 18세기 중반, 20세기 전반까지 영업을 했기 때문에 변경 이유로서 존속시기와는 큰 관련성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B-2. 다른 시기에 서로 다른 서사에서 간행된 후 목록에는 그 중 늦은 시기에 간행한 서사가 기재된 경우(『朱子書節要』)

두 간본 중 빠른 시기의 간행처인 荒木利兵衛의 활동 시기는 慶安 연간(1648~

35) 東京大 史料編纂所 소장(5382-6).

36) 名古屋大 소장(D||III|4 10420160~4).

37) 寬永 10년(1633) 진후로 해서 개점한 것으로 보이며, 享保연간까지 간행물을 확인할 수 있다. 출판물은 선종관련서적을 중심으로 하였는데, 중국의 의학 및 한학류도 많았다. 寬文연간 이후 이러한 경향이 더욱 짙어졌다(市古夏生, <田原仁左衛門>, 『日本古典籍書誌學辭典』(岩波書店), 379-380).

1652)~延寶年間(1673~1681)이고,³⁸⁾ 이후의 간행처인 上村次郎右衛門은 正保年間(1644~1648)부터 시작하여 최소한 寶永 2년(1705)까지는 영업을 계속한 것으로 보인다.³⁹⁾ 이로 미루어볼 때 上村次郎右衛門은 앞 서사의 존속시기와 관련하여 17세기 후반에 이 책의 출판권을 갖게 된 것으로 보인다.

위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17세기 전중반에 서사에서 간행된 조선인 편저 유학서는 단일 서사에서 간행되어 그대로 출판권자가 바뀌지 않고 적어도 18세기 전반까지 유지되거나, 변경되는 경우가 있었다.

또한 한편으로는 판권 문제나 별도의 장판자 등과 같은 어떠한 문제로 인해 동 시기 서사에서 같은 판본으로 간행이 되었으나, 『增益書籍目録大鈔』이 처음 작성되었던 17세기 말에는 둘 중 한 서사, 혹은 전혀 다른 제 3의 서사가 출판권자가 된 경우가 있었다. 물론 목록에 기재된 출판권자가 동 시기에 간행했던 두 서사 중 하나라면, 처음 간행하기 시작했을 때부터 출판권을 갖고 있었을 수도 있다. 다만, 이후에 출판권자가 바뀌어 간행을 해도 이전의 간기 중 시기만 그대로 둔 경우가 있어 장판자 혹은 출판권자를 판단할 때 서사의 존속시기도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續蒙求分註』와 같이 처음 장판자 혹은 출판권자는 서사였다가 18세기에 들어와서 일종의 서사조합이라고 할 수 있는 講中夷講이라는 단체에 판권이 돌아간 경우도 있었다.

따라서 이를 통해 서사에서 처음 간행된 이래 18세기 전반까지 비록 판본에는 큰 차이가 없더라도 그것의 장판자 혹은 출판권자에 변경이 있었고, 그 중에는 『自省錄』과 같이 처음 판각했던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옮겨갔다가 후대에 판권이 변경되어 다시 처음 간행된 지역으로 돌아와 간행된 경우도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38) 柳澤昌紀, <荒木利兵衛>, 『日本古典籍書誌學辭典』(岩波書店), 15.

39) 市古夏生, <上村次郎右衛門>, 『日本古典籍書誌學辭典』(岩波書店), 49.

3.3 출판권 변경에 따른 간행 방식

다음의 표⁴⁰⁾는 앞에 제시한 書籍目錄 중 17세기에 작성된 것에 기재되어 있는 조선인 編著의 유학서 17종에 대해 나타난 것이다. 당시의 목록에는 출판권자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기 때문에 아래 표에서의 간행장소는 현존본의 간기를 근거로 제시한 것이다.

<표 7> 17세기 일본 간행 조선인 편저 유학서의 서지사항

| 번호 | 서명 | 편저자 | 책권수 | 서지사항 | 간행시기/장소 (현존본 기준) | 비고 |
|----|---------|----------|------|---|---------------------|--|
| 1 | 易學啓蒙補要解 | 崔恒等撰 | 4권4책 | | | |
| 2 | 易學啓蒙傳疑 | 李滉 | 1권2책 | 四周雙邊, 半郭21.8×16.0cm, 10行22字, 註雙行, 內向2葉花紋魚尾, 27.1×19.6cm | 1657/伊吹權兵衛 | 모두 동일판본인 것으로 보임 (李退溪研究會·阿部吉雄, 1983년 책) |
| | | | | 四周雙邊 半郭22.6×16.6cm, 無界, 雙魚尾, 27.5×19.4cm | 1657/五倫書屋 | |
| 3 | 大學經筵講義 | 金麟·尹宋佛 輯 | 2책 | | 1663/武村新兵衛 | |
| | | | | | 1663/京都 小嶋彌左衛門 | |
| 4 | 韻會玉篇 | 崔世珍 | 1책 | | 17세기 증반이전 | |
| 5 | 續蒙求分註 | 柳希春 | 4권8책 | 四周雙邊, 半郭21.0×15.3cm, 無界, 12行20字, 上下向2葉花紋魚尾, 27.0×17.7cm | 明曆연간(1655~1658) | 1659/京都 大和田九左衛門 |
| | | | | | | |
| 6 | 千字類合 | | 1책 | 四周雙邊, 半郭 21.9×15.0cm, 有界, 4行8字, 26.6×18.8cm | 1692년 이후/雒陽書林 躍鯉堂 | 貝原篤信의 訓點과 1692년 序文 있음 |
| 7 | 擊蒙要訣 | 李珥 | 1책 | 四周單邊, 半郭21.0×15.7cm, 無界, 雙魚尾, 27.5×19.4cm | 1658/京都 田中清左衛門 | |
| 8 | 南秋江鬼神論 | 南孝溫 | 1책 | 四周雙邊, 10行20字, 無界, 上下內向花紋魚尾, 訓點, 27.1×17.4cm | 1643/京都 田原仁左衛門 | 刊記: 寬永癸未歲仲秋吉辰 |
| | | | | 四周雙邊, 半郭18.6×14.2cm, 10行20字, 上下內向花紋魚尾, 27.8×17.6cm | 1643/京都 風月宗知 | 刊記: 寬永癸未歲仲秋吉辰 二條顯音町風月宗知新刊 |
| 9 | 三綱行實圖 | 俛循 | 3책 | | 1630년 이전/未詳 | 寬永七年林道春獻本 |

40) 이유리, 앞의 논문, 42-45.

일본의 書籍目錄에 나타난 조선본의 출판권 변화

| 번호 | 서명 | 편저자 | 책권수 | 서지사항 | 간행시기/장소 (원존본 기준) | 비고 |
|----|-----------|-----|------|---|---------------------|--|
| 10 | 西銘考證講義 | 李滉 | 1권1책 | | 1667년경/京都小松太郎平 | |
| | | | | 四周單邊, 半郭19.4×14.2cm, 無界, 7行14字, 送假名附, 大黑口, 內向黑魚尾, 27.3×17.0cm | 1668/京都 山森六兵衛 | |
| | | | | | 1693/京都 林九兵衛 | 류탁일, 1984년 논문 |
| 11 | 聖學十圖竝戊辰封事 | 李滉 | 1책 | 四周雙邊, 半郭20.5×14.7cm, 無界, 9行18字, 註雙行, 黑口, 上下內向黑魚尾, 27.1×18.7cm | 1655/京都 武村新兵衛 | 두 판본은 동일한 것으로 보임 (李退溪研究會·阿部吉雄, 1983년 책) |
| | | | | 四周雙邊, 半郭21.4×14.7cm, 無界, 9行18字, 註雙行, 黑口, 內白黑魚尾, 27.5×19.3cm | 1655/西村五郎兵衛 | |
| 12 | 夙興夜寐箴 | 盧守愼 | 1책 | | 1666/谷岡七左衛門 | |
| 13 | 入學圖說 | 權近 | 2책 | | 1634/書舍道伴(中野市左衛門) | 附三峯先生心氣理編(鄭道傳) |
| | | | | 四周雙邊, 半郭25.8×17.7cm, 無界, 13行25字, 黑口, 內向2葉花紋魚尾, 32.1×21.6cm | 1648/京都 安田十兵衛 | |
| 14 | 朱子書節要 | 李滉 | 20책 | | 1656/荒木利兵衛 | |
| | | | | 四周雙邊, 無界, 10行20字, 上下內向3葉花紋魚尾 | 1671/京都 上村次郎右衛門 | |
| 15 | 朱子行狀 | 李滉 | 1권1책 | 四周雙邊, 半郭22.5×17.3cm, 無界, 10行18字, 黑口, 雙魚尾, 26.9×19.1cm | 1665/京都 村上平樂寺 | 1712년 京都 壽文堂에서 1665년본을 저본으로 간행함 |
| 16 | 天命圖說 | 鄭之雲 | 1권1책 | | 1646/風月宗旨 | 두 판본은 동일함(李退溪研究會·阿部吉雄, 1983년 책) |
| | | | | 四周雙邊, 半郭21.0×14.6cm, 8行16字, 註雙行, 內向3葉花紋魚尾, 26.7×18.6cm | 1651/京都 中野小左衛門 | |
| 17 | 退溪先生自省錄 | 李滉 | 1권2책 | 四周雙邊, 半郭22.1×15.6cm, 無界, 9行20字, 註雙行, 黑混入花紋魚尾, 28.0×19.4cm | 1665/京都 平樂寺村上勤兵衛 | |
| | | | | 四周雙邊, 半郭22.4×15.9cm, 9行18字, 註雙行, 內向2葉花紋魚尾, 25.8×18.2cm | 1865/京都 出雲寺松柏堂 | |

간행 시기는 대체적으로 17세기 중반이고, 2~3차례 간행이 되었는데, 간기에 의하면 시기 차이는 크게 나지 않는다. 또한 간행처가 달라도 판본이 동일한 경우가 적지 않게 보인다.

이 중 출판권 변경 전후의 판본을 모두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서 서지적 방법으로 살펴본 결과 변경 이전의 판목을 그대로 가지고 간행한 경우와 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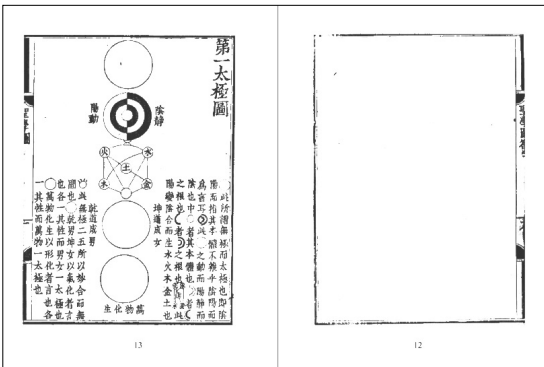
판각하여 간행한 경우, 그리고 변경 후 다시 판각하되, 일부는 이전의 판본을 사용한 경우가 있었다.

3.3.1 출판권 변경 이전의 판목으로 간행한 경우

판본의 서지사항을 확인할 수 있거나, 실물조사가 이미 이루어진 경우를 보면, 여러 차례 간행이 된 경우 시기와 출판권자의 일치 여부를 떠나서 대체로 동일한 판본인 경우가 많았다. 이는 특히 앞의 <그림 1>과 <그림 2>의 「自省錄」을 보면, 시기와 간행처 및 지역이 전혀 다름에도 불구하고 광곽 위쪽에 마멸된 부분이 일치하고 있어 판목을 그대로 가져다 간행했을 가능성이 크다.

3.3.2 출판권 변경 후 다시 판각하여 간행한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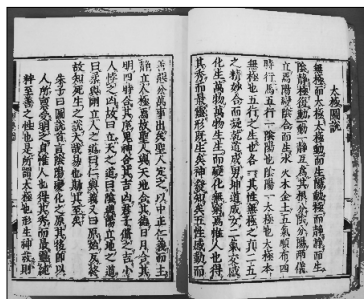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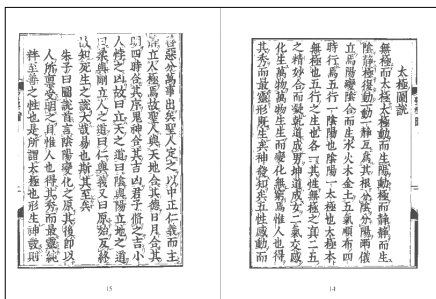
반면, 출판권자가 바뀌고 나서 다시 판각하여 간행된 것으로 보이는 경우도 있다. 「聖學十圖」의 경우 언뜻 보면 「自省錄」과 같이 동일한 판목으로 간행한 것으로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두 판본의 획의 굵기 및 글자체가 조금씩 다른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5> 변경 전 간행된 「聖學十圖」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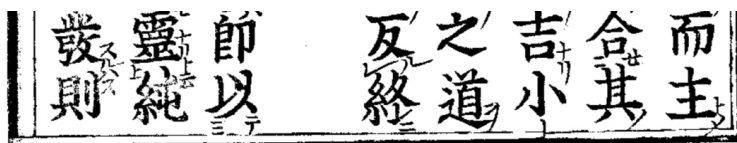


<그림 6> 변경 후 간행된 「聖學十圖」(서울대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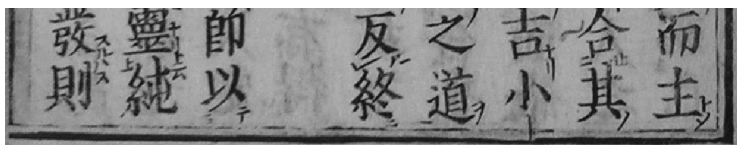


<그림 7> 변경 전 간행된 「聖學十圖」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그림 8> 변경 후 간행된 「聖學十圖」 (서울대 소장)



<그림 9> <그림 7>의 좌측 하단 부분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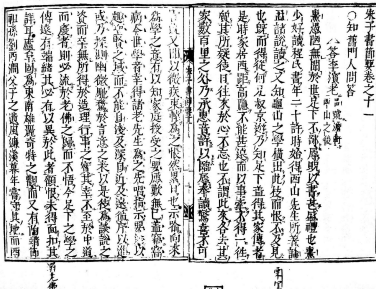
<그림 10> <그림 8>의 좌측 하단 부분 확대

3.3.3 출판권 변경 후 다시 판각하되, 일부는 이전의 판본을 살린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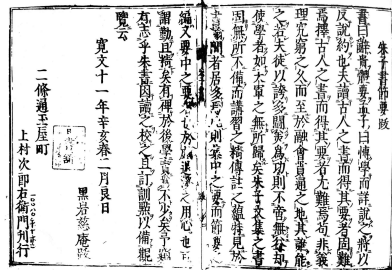
「朱子書節要」는 1656년 간본에 비해 1671년 간본에서는 저본인 조선본의 간기가 삭제되어 있고, 吳字 및 誤訓이 상당히 교정되어 있으며, 주자문집과의 문자 異同을 欄外에 표시하고 있으나, 권말의 墨岩慈庵의 발문 부분은 이전의 것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⁴¹⁾

1671년 간본을 서지적으로 보면, 마지막 발문을 제외한 나머지는 四周雙邊,

無界, 10行20字, 上下內向3葉花紋魚尾이지만, 발문은 四周雙邊, 無界, 9行17字, 上內向黑魚尾 下內向白魚尾이며, 필획과 글자의 크기가 후자의 쪽이 더 두껍고 크기 때문에 이 둘 사이에는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발문 끝의 간기 표시는 새롭게 관각하였다.



<그림 11> 「朱子書節要」 1671년 간본 (阿部吉雄 소장본)



<그림 12> 「朱子書節要」 1671년 간본 (阿部吉雄 소장본)

4. 맺음말

서사는 유통에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있으면서도, 공급자 및 수요자 모두에게 사회의 규범에 저촉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판매 혹은 구매할 서적에 대한 선택의 자유를 부여하고 있다. 특히 에도시대의 서사는 출판문화의 구심점적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적어도 유통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이들이 미친 영향은 더할 나위 없이 컸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전근대 사회에서 서사가 가지는 여러 의미들 중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유학과 출판문화가 이전 시대에 비해 성장하는 가운데, 출판의 주도 세력이 점차 幕府와 사원에서 서사로 옮겨지는 17세기에 조선인 편저 유학서가 간행된 후 유통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그러나 공급자 및 수요자 간에 이루어진 유통의 정확한 양상은 자료

41) 李退溪研究會, 阿部吉雄, 『日本刻版 李退溪全集』 上 (이퇴계연구원, 1983), 10.

의 부족으로 밝히기 어렵기 때문에 출판권자의 변경을 통해서 그 양상을 간접적으로나마 다루어봄으로써 앞으로의 관련 연구에 단초가 되고자하였다.

당시 교토는 일본에서 가장 먼저 발달된 출판문화를 갖고 있었고, 서사 또한 이곳에서 가장 먼저 등장하기 시작했는데, 1630년대부터 급증하기 시작하여 전성기인 17세기 후반이 되면, 100여 개소 정도로 늘게 된다. 이러한 가운데 17세기 중반부터는 서사에서 판매용으로써 書籍目録이 편찬 및 간행되기 시작하는데, 여기에 당시 간행된 조선인 편저 유학서가 기재되어 있다. 또한 현존본의 간기에도 간행한 서사의 이름이 나와 있어 17세기 전반부터 조선본이 간행되어 유통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처럼 서사의 규모와 역할이 점점 커짐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틀은 마련되어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서사의 중요한 자본인 판목에 대한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아 피해를 입는 서사가 많았던 한편, 幕府에서는 사회 체제나 풍속의 유지에 저해된다고 판단하는 서적이 서사를 통해 많이 유통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17세기 중반부터 이해관계에 따라 부분적으로 존재하고 있던 서사조합이 후반이 되면 전체적인 규모로 커지고, 18세기 초가 되면 막부에 의해 공식 인정받게 된다. 판권주가 유일하게 기재되어 있는 『増益書籍目録大全』은 이러한 배경 속에서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増益書籍目録大全』의 기재 내용과 현존본의 간기에 나타난 간행처를 비교하는 방식으로 이 목록이 마지막으로 간행된 18세기 전반까지의 조선인 편저 유학서의 출판권 변경 양상을 살펴본 결과, 이 목록이 작성되기 이전까지 한 서사에서 간행되거나, 여러 서사에서 같은 판본으로 간행된 경우가 있었고, 이것들이 각각 그대로 18세기 전반까지 유지되거나, 변경되었다.

변경된 원인으로는 기본적으로 서사의 존속시기와 관련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동시기 같은 판본인 경우 각각을 간행한 서사의 존속시기를 고려하여 판단해보니, 출판권이 침해되거나, 동업 관계, 혹은 별도의 장판자의 간행처 변경으로 인한 가능성이 짐작되는 경우가 있었다. 또한 판본에 나타는 간기를 서지적으로 분석해본 결과 이후 출판권자가 바뀌어도 시기 부분은 그대로 둔 경우도 있었

다. 이러한 양상을 통해 출판권의 변경이 비교적 흔히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었는데, 특히 『自省錄』을 통해서 처음 판각했던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옮겨갔다가 후대에 출판권자가 바뀌어서 간행된 경우도 있었음을 볼 수 있었다.

또한 출판권이 변경됨에 따라 판본이 어떻게 변화했는지에 대해 현존본을 확인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서지학적으로 분석해본 결과, 판목을 그대로 사용한 경우와 다시 판각한 경우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참고문헌>

- 慶應義塾大學 斯道文庫 編. 『江戸時代書林出版書籍目録集成』 1~3. 井上書房, 1962.
- 冠賢一. 『近世日連宗出版史研究』. 京都: 平樂寺書店, 1983.
- 笠井助治. 『近世藩校に於ける出版書の研究』. 東京: 吉川弘文館, 1982.
- 梅園堂. 『元祿太平記』.
- 小林善八. 『日本出版文化史』. 日本出版文化史刊行會, 1938.
- 蒔田稻城. 『京阪書籍商史』. 大阪: 出版タイムス, 1929.
- 이유리. “17세기 일본 간행 조선본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2011.
- 李退溪研究會, 阿部吉雄. 『日本刻版 李退溪全集』. 이퇴계연구원, 1983.
- 작자미상. 『京羽二重』.
- 長友千代治. 『近世貸本屋の研究』. 東京: 東京堂出版, 1982.
- 井上隆明. 『改訂増補近世書林板元總覽』. 東京: 青裳堂書店, 1998.
- 井上宗雄 外. 『日本古典籍書誌學辭典』. 岩波書店, 1999.
- 宗政五十緒. 『近世京都出版文化の研究』. 京都: 同朋舍, 1982.
- 中野三敏. 『江戸の板本』. 岩波書店, 2010.
- 辛島宗意. 『倭板書籍考』.